

<인문계열 2회차 문항1>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도덕,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빈곤, 소셜 믹스, 불평등, 공동체, 시민의식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고도로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빈민들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빈민들은 부자들을 텔레비전이나 잡지 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부자들은 빈민을 볼 기회가 거의 없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마주친다 해도 가난하다는 걸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중고품 위탁 판매점과 월마트 같은 상점들 덕분에 빈곤층은 실제보다 더 여유 있는 계층처럼 보이도록 치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40년 전에는 도심과 애팔래치아 산맥에 흩어져 있는 빈곤 지대를 다룬 ‘빈곤의 발견’이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주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빈곤 지대의 ‘사라짐’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이른바 중산층의 상상력 부족 때문이다.

부자들이 빈민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빈민들과 공유하는 서비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부자들이 빈민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공립학교와 기타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가 시간을 전처럼 동네 공원에서 보내는 대신 회원제 헬스클럽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서 보낸다. 그들은 버스나 지하철도 이용하지 않는다.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를 떠나 멀리 교외로,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게 담장을 둘러친 고급 주택 단지로, 혹은 경비가 있는 고층 아파트로 주거를 옮긴다. 또 ‘시장 세분화’라는 흐름에 발맞춰 부자들을 겨냥한 상점에서만 쇼핑을 한다. 부자들 아이들도 여름방학 동안 인구의 ‘나머지 반’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인명 구조원이나 웨이트리스나 호텔 청소부로 일하던 전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려는 추세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들은 오랫동안 꼭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여겼던 ‘힘들고, 임금도 낮고, 따분한 여름 일터’에서 일하는 것보다 진로에 도움이 될 서머스쿨이나 전문직 인턴 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한다.

정치적 분위기도 빈곤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 침묵을 지키자는 ‘암묵적 합의’라고 맺은 듯하다. 민주당으로서는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유례없는 호황’이라는 시기에 구태여 문제점을 찾아 부각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의 경우는 ‘지금껏 우리에게 익숙했던 복지’를 종식시키고 나서는 아예 빈민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졌다.

<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쁜 집에 살 이유는 없다. ‘사회주택’이 살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낙인이 없기에 중산층 중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주택이 사회주택인지 외관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자연스럽게 소셜 믹스(social mix)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대부분 네덜란드 사회주택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했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피어 스메스 교수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외부에서 보기에 디자인이 좋다”며 “사회주택과 일반주택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알아챌 수 있어 ‘좋지 않은 집에 사는구나’라는 낙인효과가 심하지만,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선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소셜 믹스는 한국에서는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것을 뜻한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종교, 연령, 인종적인 소셜 믹스를 모두 포괄하는 듯했다. 네덜란드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과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었다. 주

택공급 과정에서 소셜 믹스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들 스스로도 “다양성에 대한 역사가 있었다”면서 한국 사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암스테르담에도 부유층이 사는 동네와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가난한 동네는 없다”며 “암스테르담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주민들은 다양한 소득 수준의 계층들이 섞이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낮은 소득의 사회주택 거주자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 거주를 하거나 혹은 해당 주택을 민간시장에 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섞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의 매매 과정에서도 이들은 “재정보다는 소셜 믹스 차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처럼 소셜 믹스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해하는 정책으로 가치가 있다. 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주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왜 소셜 믹스를 시도하는가’를 알 수 있다.

<다>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재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식 문제다. 우선 공공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길 꺼려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다. 한때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의 미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구실을 했던 공공시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공적 영역이 공동화(空洞化)되면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을 수 있다. 시장에 매혹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공적 영역이 잠식되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치가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시민적 삶의 기초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공공기관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공립학교, 상류층 통근자를 끌어들이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보건소, 운동장, 공원, 레크레이션 센터, 도서관, 박물관처럼, 사람들을 배타적인 공동체로부터 끌어내 민주시민 의식을 공유하는 장소로 모이게 하는 시설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생활이 필요하다. 참여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이상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유망한 기반을 제공한다.

1. <가>의 상황을 <다>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공간’을 통해 생각해보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부자와 빈민이 서로 단절되고 공간을 통해 구별되는 것은 공동체의 위기라는 점에서 ‘소셜 믹스’ 사례인 사회주택을 통해 빈부와 상관없이 상호교류가 가능한 공적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계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장을 만들고 연대의식에 기반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시민의 덕목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문제를 통해 각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가>의 문제상황을 <다>에서 주장하는 바를 바탕으로 <나>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분석력과 논증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4)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가)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윤리를 바라보는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하고, 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 윤리적 관점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①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39쪽) ② 사회 구조 및 제도와 윤리 ③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고생41.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함으로써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다>
	성취기준 2	나)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탐구한다. ① 사회 정의의 의미(40쪽) ②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③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④ 사형 제도의 윤리적 쟁점 고생42.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4) 사회 사상 다)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①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기능(구성적 공동체)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56쪽) 고윤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및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다) 삶의 질과 복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을 파악한다. 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을 찾아보고, 이를 갖추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②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부와 사회 봉사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제시문 <나>	

과목명: 사회		관련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③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61쪽)	사회1212.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사회1228.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살펴보고, 이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가)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한다.(153쪽) (나)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153쪽) (다)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153쪽) (라)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한다. 사회1241.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사회1242.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43.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2017	290-292	제시문 <가>	○
[남의집살이 in 유럽]	원정희	비즈니스 위치	2019. 8. 8.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9/07/08/0011	제시문 <나>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와이즈 베리	2015	384-390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5	162-166	제시문 <가> <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2015	150-153	제시문 <가> <다>	○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76-81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5	74-77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병기 외	지학사	2015	251-256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5	180-184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김선욱 외	금성출판사	2015	218-223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184-188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5	152-155	제시문 <가> <나> <다>	○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바버라 에런라이크, 『노동의 배신』, 부키, 2017, 290-292쪽

<가>는 미국 사회에서 빈곤층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중산층과 부자들은 빈곤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현실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계층 간에 물리적 공간이 분리되어 교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문제에 정치권의 무관심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나> : 원정희, “남의집살이 in 유럽”, <비즈니스 워치>, 2019.08.08.

<나>는 일반 주택과 외관상 별 차이가 없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소득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연령, 인종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소셜 믹스의 사례다. 가난한 사람들이 낙인효과 없이 동일한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계층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5, 384-390쪽.

<다>는 불평등이 심화하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공공 시설의 재건을 통해 계층 간 분리된 생활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공공 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부유한 계층이 빈곤층이 함께 만나는 장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미덕을 키워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 <가>의 상황을 <다>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

인문계열 2회차 <문항1>에서 제시된 논제는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가>의 문제 상황을 <다>의 주장을 통해 검토하시오.

둘째 위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논하시오.

본 논술 문항의 주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 간의 공간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논제는 제시문 <다>를 통해 <가>의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나>의 예시가 주는 함의를 해석하는 데 있다. 즉 <가>의 사회 양극화에서 기인된 공간 분리 문제를 <다>에서 언급한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공동선을 위한 시민적 미덕의 가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나>의 네덜란드 ‘사회주택’ 사례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을 구현한 소셜 믹스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논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계층과 불평등, 공동체와 연대, 사회정의 및 복지 등의 주제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제로서, 각 제시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살펴보면서 체계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답안의 기본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문제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p>① <가>에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핵심을 요약한다.</p> <p>: <가>는 미국 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계층 간의 공간분리가 일어나고 상호교류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에,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는 달리 빈곤 관련 보도가 사라지고 빈민들도 자신의 가난을 감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부자들은 빈민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방향으로 삶의 양식도 변화되면서 빈민들과 점점 분리되고 있다. - 진보나 보수와 관계없이 정치권은 빈민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양극화, 불평등, 빈곤층, 부자, 공간, 빈곤의 발견, 공공장소, 공유, 정치적 분위기, 복지 <p>【제시문 <다>의 핵심 주장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다>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p>② <다>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한다.</p> <p>: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우려되기에 공적 영역의 재건과 참여정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찾아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공적 공간이 쇠퇴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이 취약해질 수 있다. -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서로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적 공간을 재건하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키워가야 한다. <p>③ <다>의 관점에서 <가>를 연결하여 어떤 점이 문제 상황인지 정리한다.</p> <p>: <다>에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관점이 <가>에서 빈민들이 비가시화되는 상황과 계층 간 공간 분리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적 영역이 위축되면서 <가>에서 거론한 것처럼, 부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일상의 삶에서 빈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불평등 심화, 시민의식, 공공서비스, 시민의 미덕, 민주 시민의식, 연대, 공동체의식, 공적 영역, 정의로운 사회, 좋은 삶, 참여정치, 공동선 <p>【제시문 <나>의 의미 서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부분의 주장과 연결하는 논의 과정에서 논리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것 <p>④ <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p> <p>: <나>에서 언급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혼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써 역사성이 있음을 지적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택은 소셜 믹스에 바탕을 두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계층 간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 간 구체적인 사례다. <p>⑤ <나>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연결하여 논한다.</p> <p>: <나>에서 소셜 믹스가 가능했던 성공 요인으로 사회주택 관련 기관과 시민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온 역사에 기반한다는 점을 <다>의 시민의식과 연결해서 서술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인해 빈부 간 분리된 현실 상황이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적 공간의 복원과 민주적인 시민적 미덕을 함양함으로써, <나>의 소셜 믹스가 구현된 구체적인 사회주택 예시를 통해 계층구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 	

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의미를 지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가난한 사람, 나쁜 집, 사회주택, 소셜 믹스, 낙인, 다양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다양한 계층, 교류, 부유층, 이해, 점점 	
①, ②, ③, ④, ⑤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문장 표현에 약간의 미흡함이 있는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기술하였으나 ⑤의 내용을 충실하게 답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기술하였으나 ④, ⑤를 미흡하게 답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기술하였어도 환문하지 않고 제시문 표현을 단순히 베껴 쓴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서 한 두 개만 충족하여 답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답안 완성도에 결함이 많은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무관하거나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9등급

※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9등급 처리함.

7. 예시 답안

<가>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로 계층 간의 공간분리와 상호교류가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빈곤 관련 기사가 보도에서 사라지고 빈민들도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부자들은 빈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부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삶의 방식도 변화되면서 빈민들과 분리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없어지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는 공간을 통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공간이 분리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쇠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공적 영역이 위축되고, 서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무너질 수 있다. 즉 <가>에서 부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빈민들과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게 됨으로써 <다>가 우려하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적 공간이 쇠퇴하면 시민의식도 약화될 수 있기에, 단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서로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시설을 재건함으로써 공동선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미덕을 키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소셜 믹스에 바탕을 둔 사회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 없이 누구나 살만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믹스가 가능했던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의 계급 간의 공간분리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에서 제시한 공동체적 가치에 입각하여 건설된 <나>의 사회주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의식과 소셜 믹스를 통해 계층 간 교류와 사회통합을 구현한 사례로서 <나>의 예시는 의미가 있다. [1,090자]

<인문계열 2회차 문항2>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고통, 공감, 소통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인간에게 특정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결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이 역설을 인정할 때 나는 불편해지고 불우해진다. 그러나 인정은 거기서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뛴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아마도 나는 네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기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자주 둘 다가 되고 마는 심장의 비참. 이 비참에 진저리 치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한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픈 공부다.

<나>

자기 고통의 '지금 당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신이 고통에 예민해져 있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선아는 처음 사람들과 함께 걸었을 때 자기 고통을 그들에게 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의 당사자이니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한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그런데 선아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기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흔한 말이지만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각자의 고통이 있었다. 종류와 강도, 그리고 대처법은 다르지만 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한결같이 동시에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 야기하는 또 다른 고통인 외로움이라는 것을 말이다.

선아가 집단 상담에서부터 들판을 걷는 데 이르기까지 만난 사람들의 고통은 모두 다 이 외로움에 닿아 있었다. 선아는 고통의 절대성에 몸부림칠 때 자기만 괴롭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바깥을 발견하고 그 바깥의 소리를 들으며 선아는 깨닫는다. 고통을 겪는 자는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은 다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고통의 절대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아가 발견한 것은 의외의 것이다. 고통은 절대적이기에 소통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절대성은 보편적이다. 그렇기에 고통은 사람을 나‘만’의 세계로 밀어 넣는다. 그러나 그 절대성이 나‘만’을 나‘만’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한다. 내가 외로운 만큼 너도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서로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 고통 자체는 절대적이어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바로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의 절대성 자체가 공통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통의 절대성이 만드는 외로움에 대해, 그 외로움을 마주 대하고 넘어서려 했던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외로움이 세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고립시켰지만, 바로 그 외로움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외로움은 통하게 된다. 지금 몸부림치는 다른 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다>

차별 경험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하버드보건대학원의 낸시 크리거 교수는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차별과 같이 예민한 경험을 측정할 때는 차별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인지하는 것, 그 인지한 차별을 보고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차별을 인지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연구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약자인 흑인, 여성, 아시아인들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설명합니다.

구직 과정의 차별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여성 노동자와 학교 폭력에 대해 ‘아무 느낌 없다’라고 답한 남학생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거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겪고도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한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은 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던 다문화가정 남학생들 또한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말할 수 있었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는 일은 아프면서 동시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2.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나>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통의 공감과 소통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고 답할 수 있는 문제로 고안되었다. 고통의 종류와 원인은 실로 다종다양하다. 질병·장애 등 육체적 요인에 의한 고통, 차별·소외·학교폭력·따돌림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고통,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한 고통, 뚜렷한 요인이 없음에도 엄습하는 고통 등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의 양상은 유형화하기 어려울 만큼 다변화되었고 그만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둘러싼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통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들이 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밖으로 말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며, 자기중심주의를 내면화해 극도로 파편화된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들이 자신과 다른

타자적 존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서로 다른 존재들에 대한 다양한 혐오 양상은 타자와의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육 차이와 경계를 넘어 내가 아닌 존재,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과 소통해야 할 당위성은 더 커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 문항은 고통을 매개로 타자 간 공감과 소통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p>(2)생명·성·가족 윤리 (㉸) 친구·이웃 관계의 윤리 친구와 이웃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친구 관계와 이웃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친구 사이에 강조되어야 할 덕목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을 탐색하며,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p> <p>① 친구 관계와 윤리 문제 (38쪽) ② 이웃 생활과 윤리 문제 (38쪽) ③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 (38쪽)</p> <p>고생25.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과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강조되어야 할 덕목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p>
	성취기준 2	<p>(4)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p> <p>①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40쪽) ② 차별과 역차별,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40쪽)</p> <p>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p>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p>(4)사회사상 (㉸)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p> <p>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 (56쪽)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56쪽)</p> <p>고윤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및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p>	<p>관련</p> <p>제시문 <가> 제시문 <나></p>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p>(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 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④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예: 장애인 고용제, 공정 거래 제도, 국토 균형 개발 등)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한다. (58-59쪽)</p> <p>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 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p> <p>(나) 다양성과 관용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 생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를 단순히 인종 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문화, 종교 갈등,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한다. (60쪽) 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 인정이 필 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60쪽) ③ 다문화 사회(지역, 인종과 민족, 성, 계층, 장애 등 고려)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 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60쪽)</p> <p>사회1225.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존중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6.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이 관점을 적용하여 다양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7.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문화 사 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시문 <나> 제시문 <다></p>
	<p>사회1225.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존중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6.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이 관점을 적용하여 다양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7.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문화 사 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p>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p>문학과 삶 (1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작품 속의 세계와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자신의 삶과 생 각을 통해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독자는 풍부한 감수성, 예리 한 통찰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두루 갖춘 내면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을 통 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다양성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자아의 내 면세계가 보다 넓고 깊어짐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개성 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39쪽)</p> <p>310513-1.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각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다.</p> <p>(14)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인간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되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 우리는 환경 문제, 다문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학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 를 기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타인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140쪽)</p> <p>310514-1.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 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310514-2.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310515-1. 문학 작품을 읽고,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310515-2. 한국 문화의 가치가 담긴 작품들을 읽고,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p>	<p>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p>
	<p>310513-1.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각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다.</p> <p>(14)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인간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되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 우리는 환경 문제, 다문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학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 를 기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타인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140쪽)</p> <p>310514-1.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 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310514-2.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310515-1. 문학 작품을 읽고,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310515-2. 한국 문화의 가치가 담긴 작품들을 읽고,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p>	

과목명: 문학	관련
노력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	한겨레출판	2018	27-28	제시문<가>	×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엄기호	나무연필	2018	124-126, 259-260	제시문<나>	○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2017	21-22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94-95	제시문 <나>, <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6	164-165	제시문<다>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6	208-209	제시문 <가>, <나>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55-57	제시문 <나>, <다>	○
문학	박종호 외	창비	2014	286-287	제시문 <가>, <나>,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가>: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27-28쪽

<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밝힌 글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인간은 아무리 애쓴다 해도 결코 타인이 될 수 없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는 나와 타자 간의 넘을 수 없는 경계로 인해 ‘슬픈 공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에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공부다. 그것은 불가능성을 넘어 공감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나>: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2018, 124-126, 259-260쪽

<나>는 고통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글이다.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 선아는 자신만이 괴롭고 아무도 자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각자 나름의 고유한 고통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선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통 자체는 각자에게 고유하고 절대적인 것이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그 공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 고통의 공감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고통을 가진 이들은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이야기한 외로움이라는 보편적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절대적인 고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되레 고통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고 있다.

제시문<다>: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21-22쪽

<다>는 사회적 폭력을 경험한 당사자가 그 상처에 대해 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상처가 각인된 몸에 관한 글이다. 차별, 학교폭력 등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한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 아프면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므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몸은 상처 그 자체이면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기도 하다.

■ 논제의 구성

본 논술문항의 주제는 ‘고통의 공감과 소통 가능성’이다. 제시문<가>, <나>, <다>는 슬픔, 고통, 상처 등 마음과 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타자 간의 공감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나>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1,000±100자)

논제는 제시문<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슬픈 공부’의 가치를 제시문<나>의 관점에서 연결해 풀어 설명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다>의 요지를 파악해 추출한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 즉 조건을 제시할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의 슬픔, <나>의 고통, <다>의 상처가 모두 다양한 이유로 겪게 되는 인간의 고통과 그 소통을 문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연결해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는 비당사자의 관점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 <나>는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기, <다>는 당사자가 고통을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각각 다루고 있음을 파악해 논제에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에 대한 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 ① <가>의 요지를 통해 ‘슬픈 공부’의 의미를 파악한다.
- ② <나>의 요지를 파악해 <가>와의 연결점을 추출한다.
- ③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설명한다.
- ④ <다>의 요지를 통해 무엇이 문제 상황인지 파악한다.
- ⑤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 가능한 근거를 <가><나>를 통해 제시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안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제시문 <가><나>의 요지를 파악해 두 지문의 연결점을 추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지문을 하나의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p>①제시문 <가>의 요지를 통해 ‘슬픈 공부’의 의미를 파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슬픈 공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은 말이다. • 예시답안 첫 번째 단락의 전반부 참조 <p>②제시문 <나>의 요지를 파악해 <가>와의 연결점을 추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아의 사례는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고통을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고통은 <가>의 슬픔과 상통하므로, 고통을 소통한 <나>의 사례는 타인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가>에게 유의미한 예시가 될 수 있다.

• Key Word :

제시문 <가> 슬픔, 타인, 한계, 심장, 공부

제시문 <나> 고통, 고통의 절대성, 외로움, 보편적, 소통, 이야기

[제시문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 설명]

• 한 지문을 통해 다른 지문의 함의를 보완 설명하는 독해력 측정

③<나>의 요지를 <가>의 요지와 연결해 ‘슬픈 공부’의 가치를 설명한다.

-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오히려 고통을 교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나>의 역설은 타자와의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한 <가>의 ‘슬픈 공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한다.

• ‘역설’ 또는 그에 준하는 단어(페러독스 등)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가산점

• 예시답안 첫 번째 단락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슬픈 공부, 역설, 가치, 교감, 소통, 보편적 절대성

[제시문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 가능한 근거 제시]

• 앞의 두 지문과 연결해 문제 극복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논리력 측정

④제시문 <다>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다>의 문제 상황은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상처를 인지하는 것은 아프고 혼란스럽기에 당사자의 ‘자기 말하기’는 어렵다.

• 말하는 것과 인지하는 것 모두의 어려움이 ‘문제 상황’이라고 답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상처를 인지하는 것의 어려움만 답한 경우는 감점 대상.

• ‘몸’은 상처를 기억해 차별 경험에 대해 말하는 토대가 되므로, 상처받은 몸 자체가 문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가><나>를 통해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몸은 당사자가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처를 정직하게 기억한다. 따라서 ‘몸’은 상처의 증거로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들어주는 이가 없으면 말할 수 없으므로,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의 의지는 <다>의 당사자가 상처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통의 고유성과 절대성을 넘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나>의 사례도 <다>의 ‘자기 말하기’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 당사자의 ‘아픔’이라는 점에서, <다>의 상처가 <가>의 슬픔, <나>의 고통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명확히 적시한 답안은 가산점 대상

• <가><나>만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경우보다 <다>의 ‘몸’을 근거의 하나로 문맥에 담아 제시한 답안은 가산점 대상

• 예시답안 두 번째 단락을 참조

• Key Word : 몸, 상처, 차별, 학교 폭력, 말하기, 인지, 기억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체계적인 논리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으나,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서술하였지만, 논리적 구성이 미흡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서술하였으나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서술하였으나 ④,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 ②를 서술하였으나 ③, ④,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서 한두 개만 충족하고 답안의 충실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의 요소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글자 수가 800자 미만인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 사항에 무관한 답을 썼거나 아래의 <유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9등급 처리함.

7. 예시 답안

<가>의 ‘슬픈 공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은 말이다. 인간은 아무리 애쓴다 해도 결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순 없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는 1차적으로 나와 타자 간의 넘을 수 없는 벽을 전제하기에 ‘슬픈 공부’이지만, 한편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에 역설적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선아의 사례는 ‘슬픈 공부’의 가치를 뒷받침한다. 애당초 아무도 자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가 집단상담 등을 통해 다른 이들도 각자 나름의 고통이 있으며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통 자체는 각자에게 고유하고 절대적이어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 교감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역설은 <가>의 ‘슬픈 공부’의 역설과 상통한다.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고통을 교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의 문제 상황은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우선, 몸은 당사자가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처를 정직하게 기억하므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가장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통의 고유성과 절대성을 넘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나>의 사례, 타인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가>의 의지도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의 상처는 <가>의 슬픔, <나>의 고통과 동의어가 되며, <다>의 상처를 새긴 몸은 <가>의 심장을 넘어 <나>의 다른 이의 몸부림과 맞닿게 된다. 고통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1,080자]